

(그렇다고), 왜그리니까니까(왜 그러냐면)라는 낱말도 가끔 튀어 나온다.

박정희 정권 때에는 나중에는 호지부지해 버리기는 했으나 한 동안은 사투리를 쓰는 사람은 아나운서에서 제외 한 적도 있었다. 그러다가 5공화국 시절에는 방송 매체가 편파 보도를 한다는 세론이 커지면서 때를 같이 하여 KBS, MBC의 특정 지역 사투리가 한층 거세게 전파를 타게 되었다.

국어 순화란 말로나 슬로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교부나 문공부,

넓게는 정부 전체의 홍보 정책이라는 홍보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은 국민의 협조하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통감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방송 매체가 오히려 거꾸로 우리말을 순화하기는 커녕 대중말을 흐리게 하고, 특정 사투리를 전파의 주용어로 전국으로 흘려 보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말의 순화란 구두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마땅히 KBS, MBC는 국어 순화에 앞장 서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국어 심의 위원)

국어 순화 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정 언 증

한 나라의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인 동시에 사회 발전의 산물이며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해 주는 문화의 대들보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생활이 건전하면 국민 정신이 건전해지고, 언어 자체가 거칠고 언어 생활이 비뚤어지면 국민 정신의 건전성도 파괴되고 마는 것이다. 순화된 언어, 품위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는 그만큼 주체성이 강하고 도덕과 질서가 확립되어 있는 사회임을 자부할 수 있게 된다.

자주 인용되는 말이지만 국어를 지킬 수 있었던 겨레는 실사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았어도 그 국어를 지켰기에 멸

망하지 않았고 국어를 잃어 버린 민족은 실사 남을 지배했다 해도 멸망하고만 實實은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안겨준다. 그러한 관점에서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질렀던 악랄한 언어 말살 정책은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국어를 순화하고 행정 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 소망스러운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것도 일제의 오랜 문화 식민지적 교육이 가져다 준 폐단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 한 가지 국어 순화를 더디게 한

요인으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외국어의 남발과 일본식 용어의 답습, 어려운 용어를 써야 유식한 것처럼 착각하는 일부 식자층의 빗나간 언어 생활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국민들이 잘 모르는 어려운 용어를 써야 官의 체면과 위엄이 서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도 국어 순화를 경제시킨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언어의 관습을 바꾸는 일이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좋은 우리 말을 두고 구태여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를 쓰는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순수한 우리말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할 줄 안다.

아직도 흔히 쓰는 일상 용어 중에서 일본말이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전기다마(電球), 우동(가락국수), 요비링(초인종), 우와기(윗옷), 즈봉(바지) 등은 물론이고 출판 계통 종사원들의 상용어 가운데는 거의가 일본말 일색이다.

과연 우리에게 언어 문화가 있느냐 하는 反問을 던지게 하는 현상도 우리는 자주 보고 있다.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간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예사롭게 퍼붓고 해괴한 은어, 동물 우화를 흥내낸 유행어가 일상 대화의 큰 몫을 차지하는가 하면 무분별한 외국어, 반말, 사투리 등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비뚤어진 언어 생활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를 냉철히 깨닫고 바로 잡아가는 노력이야말로 국어 순화의 가장 큰 과제라 하겠다. 많은 전문가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한 것처럼 대중매체인 방송의 영향과 진정한 국어 교육의 부재도 크나큰 문제점이다. 특히 텔레비전에서 마구 흘려 보내는 광고 내용과 코메디 프로 등에서 남발되는 해괴한 우스개 말 한 마디가 비관없이 수용되고 있는 것은 비뚤어져 가는 언어 문화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다. 가장 순수한 언어를 구사해야 할 젊은이들의 세계에서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은어가 마구 통용되고 있는 사실은 국어 순화 운동의 필요성을 갈수록 절감케 하는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의 국어 교육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언어 생활의 혼란, 난맥상은 무엇보다도 국어 교육의 낙후성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은 결코 심한 지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학을 나와도 편지 한 장 제대로 못 쓰고 그저 단편적 지식의 암기로 끝나는 교육 실태로서는 국어 순화의 장래를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순화된 우리말이 제대로 보급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순화 자료집이 발간되고 있으나 국민의 언어 생활에 순화된 우리말이 그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계몽과 교육적 관심이 확대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말이란 생각의 몸뚱이”라는 헤겔의 말과 같이 언어와 정신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국어 교육의 강화는 아무리 강조돼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다.

외래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겠다는 폐쇄적인 태도도 나쁘지만 우리 말

의 발전과 확대를 돕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도 안될 것이다.

국어 순화, 우리말을 순화함으로써 우리의 말과 혼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대 국민 운동이라도 벌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

(경향 신문 논설 위원)

우리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 강 로

국어 순화는 정신 순화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다. 한 나라의 정신 사회는 말로써 수렴되고 말로써 생산하기 때문이다. 순화라는 말은 오염되고 더러워진 것을 본디의 순수한 상태로 환원시킨다는 뜻이다. 즉 순화라는 말의 밑바탕에는 여러 잡것들이 섞여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말을 순화하자는 데는 그만큼 국어가 오염되고, 더러워졌다는 것이다.

우리의 배달말은 한자말이나 일본말과는 달리, 어휘면에서나 음운면, 문법면에서 우리의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순수한 우리말이 있으면서도 이것을 기록할 글자가 없었다. 이러한 문자적 공백기에 정치적·문화적으로 상당히 발달된 중국 문화가 한자에 얽혀서 우리 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순수한 토박이 말을 개떡이 들어왔다. 우리의 문화 유산을 기록으로 남기려면 한자를 빌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므로 자연스럽게 한문 그대로 사용하여 우리말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한자의 뜻이나 음(音)

을 빌어 우리말을 나타내기도 하는 기간이 오래 됨에 따라 순수한 토박이말은 차차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말갓말갓하다'는 말이 '耿耿하다'로, '하 놀이다'란 말이 '戲弄하다'로, '오누이'가 '男姝'로, '메'가 '山'으로.....이렇게 수많은 순수한 토박이말이 한자말로 대체되면서, 배달말의 정신 사회가 한자말을 쓰는 중국식 정신 사회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사회적 변환을 부추킨 것이 바로 지식 계급이었다. 여기에서 더욱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발전하여 한자를 많이 쓰는 사회일수록 훌륭하고 드높으며, 토박이말을 많이 쓰는 사회일수록 낮고 천하게 생각하는 사조가 우리 사회에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한자말이 토박이말 이상으로 수적으로도 많고 안하무인격으로 권위를 휘두르고 있다. 이것은 곧 정신면에서 제 정신을 잃고, 한자어라는 외국 정신에 도취되어 제 실자리를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실지로